

환율효과로 성장률엔 ‘+’... ‘수출감소’ 현실 직시해야

강(強) 달러 시대

① 원화값 나홀로 강세

日 정책선택·동향 반면교사 삼아 韓의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해야

달러 몸값이 뛰고 있다. 글로벌 달러 강세는 원화값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상 보복 등 실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만 키울 것이라 우려도 크다. 환율하락(원화값치 하락)에 따른 ‘낙수 효과’(내수 회복)도 예전 같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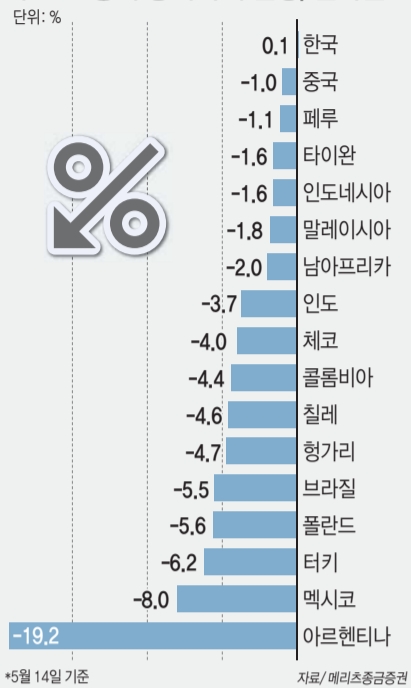
특히 한국경제의 체력이 좋아졌지만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등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나타나는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달러 강세에도 원화값은 나 홀로 강세?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장밋빛이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4%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지금처럼 좋을 때 얘기다.

4월 16일 이후 주요 신흥국 통화가치 절상/절하율



이 같은 전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수출이 잘 돼야 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출액은 500억6000만 달러(약 53조5642억 원)로 지난해 4월보다 1.5% 감소했다. 월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제조업의 지난 3월 평균 가동률은 70.3%로, 70%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달러값이 뛰고 있어 큰 걱정 하나는 달

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4월 이후 3.4%나 뛰었다. 15일(현지 시각)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7% 안팎 치솟으면서 장중 93.457까지 올랐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오르면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매출이 늘어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원화값 상승)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하지만 환율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의 ‘엔저’가 주력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산업연구원(KIET)의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일본 수출은 6900억 달러로 3년 만에 15.8% 줄어 들었다.

보고서는 “엔화·달러 환율 가치 하락에도 수출 회복이 더딘 현상은 해외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 상당수도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KIET 측은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 선택과 동향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도 떨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환율이 제조업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2년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원화값이 달러 값과 동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화값은 한 달 전(4월 16일)에 비해 0.1% 절상됐다. 연초에 비해서도 0.4% 절하되는데 그쳤다. 반면 주요국 통화는 하락세다. 일본 엔화와 유로화는 달러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위안화(-1.0%), 인도 루피(-1.6%), 남아공 란드(-2.0), 브라질 헤알(-5.5%), 멕시코 페소(-8.0%) 등 모두 하락했다.

메리츠증권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GDP 대비 5%에 달하는 경상흑자와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 중 하나이다”면서 “이는 한국 원화가 이미저 통화 내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에 부각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신흥국 통화가치 급락, 긴축발작은 ‘경제’ 급격한 달러 강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유안타증권 조병현 연구원은 “사실 2017년 이후 진행된 신흥국의 상대 강도 회복에 있어 달러의 약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달러의 추세적 강세가 진행될 경우 큰 틀에서의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내포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급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와 여기서 파생되는 달러 강세 압력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달러 강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미국으로 역류하면서 달러 강세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단기적으로 미국 내의 공장 가동률은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또한 달러 강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러시아 등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나타나는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신증권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환율변동성 확대가 신흥국 경기 전반의 펀더멘털 악화 또는 가파른 달러화 강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 2013년과 같은 긴축발작(Taper Tantrum)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높아지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대처능력이 좋아졌다는 점 등이 신흥국 경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코스피 상장사 1분기 순익 2.6% 증가

한국거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삼성전자 제외엔 당기순이익 감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이 올 1분기에 장사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등 정보기술(IT)·반도체 업종의 이익 기여도가 컸다.

1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44개사(금융업·분할합병 기업 등 81개사 제외)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463조 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82%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2조8000억원으로 9.96%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32조8000억원으로 2.63% 늘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9.23%로 작년 동기 대비 0.43%포인트 올랐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은 7.08%로 0.15%포인트 떨어졌다.

전체 상장사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의존도 여전히 높았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코스피 상장사의 매출은 403조원으로

2.8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7조원과 21조원으로 각각 6.43%와 13.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 가운데 413개사(76.1%)는 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130개사(23.9%)는 적자를 냈다.

적자 전환 기업이 56개사로 흑자 전환(39개사)보다 많았다.

상장사들의 1분기 말 현재 부채비율은 110.52%로 작년 말(110.08%) 대비 0.44%포인트 높아졌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834개사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1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3%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조1000억원으로 9.24% 줄었다. 순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35.92%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5%로 0.70%포인트 하락했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4.42%로 1.07%포인트 높아졌다.

분석 대상 기업 중 흑자 기업은 542개(64.99%), 적자 기업은 292개(35.01%)였다. /김문호 기자

<영업이익 상위 15사> (단위: 백만원, %)

회사명	영업이익		증감률
	2017년 1~3월	2018년 1~3월	
삼성전자	9,898,361	15,642,170	58.03
SK하이닉스	2,467,599	4,367,338	76.99
SK	1,699,643	1,581,424	-6.96
포스코	1,364,969	1,487,704	8.99
LG전자	921,536	1,107,817	20.21
한국가스공사	826,669	963,495	16.55
SK이노베이션	1,003,875	711,583	-29.12
현대자동차	1,250,761	681,291	-45.53
롯데케미칼	814,826	662,024	-18.75
LG	615,566	614,568	-0.16
GS	645,586	566,520	-12.25
한화	645,831	523,632	-18.92
현대모비스	668,695	449,846	-32.73
케이티	416,991	397,122	-4.76
GS건설	58,957	389,813	561.18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 판단”

>> 1면 ‘삼바 감리위 대심제...’서 계속

삼성바이오 측은 또 “17일 열릴 감리위 심의를 앞두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리위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대

심제로 열리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일부 감리위원과 증선위원을 배제시켜 달라는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감리위 구성, 증선위 구성 등 저희가 보기에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의도로 보인다. 감리위가 증선위 자문기구인데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금융위는 전일 삼성바이오 감리위에 대해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원래 감리위는 자문기구여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

‘남북회담 취소’ 극단적 비관론엔 선 그어

>> 1면 ‘靑, 남북회담 취소 파악...’서 계속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거나 비껴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정착 드라이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뿐더러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지금까지 끌어온 비핵화 진전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측의 고위급회담 취소 통보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청와대의 태도는 자



16일 한산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연합뉴스

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신중대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표가 전체의 ‘판’을 흔들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에는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다. /김승호 기자 bada@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김대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